



"소통을 통해 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24-25시즌 페퍼저축은행이 외국인 선수로 선정한 크로아티아의 아포짓 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바치(29)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비치는 팀의 사전 의료 검사를 위해 7월 28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월 9일, 페퍼저축은행은 2024년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대표팀에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1순위로 자비치를 선정했습니다.

191cm의 키를 자랑하는 자빅은 아칸소 대학교 NCAA 디비전 I을 졸업한 후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스위스 등 여러 리그에서 활약했습니다. 2023년에는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2023 FIVB 배구 네이션스 리그(VNL)에 참가했습니다.

자빅은 팀 합류 소감에서 "새 시즌을 페퍼저축은행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칭 스태프 및 선수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카라 게임](#)